

찾아가는 房門
공공임대주택 公共賃貸住宅
입주민 入住民
일자리상담 就業 相談

2018.07.12.

SH Corp HA KYOUNG SUK, 서울주택도시공사 하경숙 과장

(現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센터 팀장)



△ 마곡지구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영구임대 22,672세대, 국민임대 23,391세대 등을 포함하여 약 19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며, 예술인주택과 창업청년지원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建設形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매입형
買入形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임차형
賃借形

일반주택을 빌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都市内孤立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급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빈곤층이 모이는 도시 속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建物老朽化

특히,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아파트 노후화의 심화로 공간의 활력이 떨어지고 슬럼화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So,

2014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일자리상담센터를 설치

민간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간접 알선**

2015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기관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
대학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일 경험을 제공

2016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로 사업방식 개선

「찾아가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상담사」 사업 계획서
제출 → 일자리 **직접 알선 가능**

2016년 10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33개 단지
46,012세대를 대상

총 12명의 일자리상담사가
2인1조로 해당단지를 직접 방문

일자리상담, 취업지원, 자원연계,
진로 및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2,648건의 상담과 10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107명 중에는 장애인, 모부자가정, 수급자 등이 다수 포함)

2017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70개 단지

69,190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총 34명의 일자리상담사 참여 사업규모 확장

일자리상담사가 2인1조로

매주1회 일정한 요일에 방문

상담 이후 2~4회 정도의 전화 상담과 방문 방식으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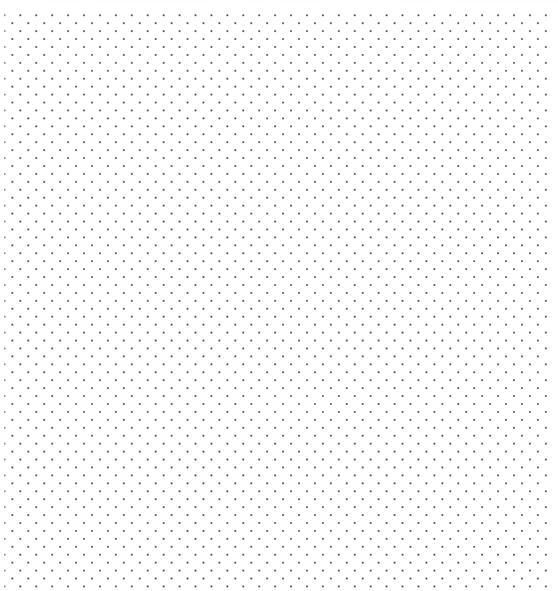
이에 따라, 상담건수 및 취업건수도 증가하여

12,353건의 상담과 1,114건의 취업 성공



기본적 일자리상담 알선에서 모의면접 및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시니어 집단 상담



구직서류 작성지원



모의면접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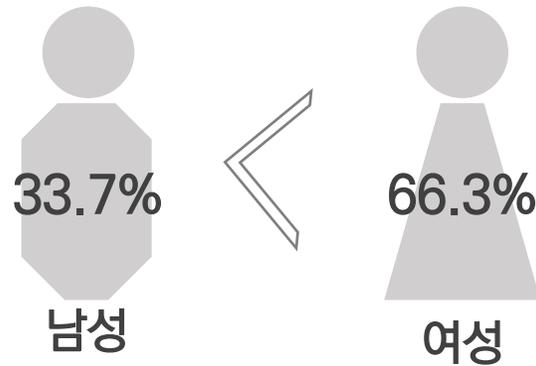
취업기관 방문 동행 취업지원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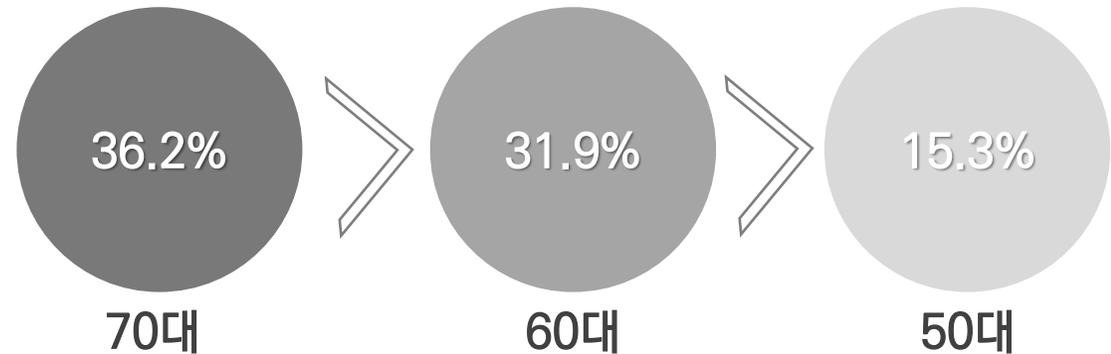
2016. 10월 ~ 2017. 5월 서비스 이용고객 대상

■ 성별, 연령별 취업성공률

여성의 취업 성공률이 월등히 높음



60대 이상 입주민의 취업성공률이 68.1%로 큰 비중을 차지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돌보미 사업」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성이 준 영향으로 유추되는데 융합형 고용서비스의 필요성 확인

■ 서비스 이용 입주민의 현황과 취업의 연관성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의 경우 입주민의 일자리 상담 서비스 이용 비율이 14.1%로 저조, 수급권 탈락여부가 소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 취업 성공그룹 최종학력은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중졸이상은 취업성공률이 66.7%인데 반해 취업하지 못하는 그룹은 46.1%가 학력이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 학력임

■ 일자리 상담서비스 제공 후 미취업자 현황 및 서비스의 한계성

- 실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질문에 86.4%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기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취업과 실직 상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파서’가 6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자발적 실업상태 비중이 더욱 높으며**, 상담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취업 활동 동기 형성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 이후 취업상태에 따른 입주민 활력 비교

- 일자리가 생기므로 얻어지는 삶의 활력측면에서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경제적 안정감 측면에서는 임금수준이 50만원 미만인 취업자가 42.2%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함
- 일자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취업만족도와 만족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력이 생겨서 가장 좋다고 하고, 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여유와 사회적 소속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 자체를 재미있게 생각하며 일을 통해 활력과 활기를 찾았다는 의견도 많음

상담 사례 1

1. 오랜 기간 실직으로 구직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상담을 시작
2. 일자리상담사와 3차례 상담을 진행
3. 상담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및 면접에 대한 코칭 서비스 이용
4.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 성공

그동안 실직자로 지내오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써 역할을 하고 마음이 편해 지셨다고 하시며 일자리상담사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업운영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54세 남성

상담 사례 2

4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딸 병원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고 싶다고 상담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연세는 있으셨지만, 건강해 보였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1. 일자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 코칭 서비스 제공
2.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일자리상담사 동행 면접
3. 집 근처 임대주택단지에 청소원으로 취직

비록 연세가 많으셨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결국 일자리를 얻게 되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통해 우리가 이 사업을 기획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6세 여성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업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유지하고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사업자로서 입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국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안착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